



한국작물보호協, 「2006서울국제원예전시회」 전시 참여

농진청, 8.30~9.3 한국농업근현대화 100년 사업 개최

농진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본청에서 농업인, 소비자, 농업인단체, 학계, 산업계, 농업관련기관 및 지자체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권적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 이의 일환으로 국제원예학회와 한국원예학회가 주최하는 '제27회 국제원예학대회(IHC) 2006'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편,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일 장소에서 열린 「2006서울국제원예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는 2개 상당 부스를 확보, 주요 원예용 농약 및 농약안전성에 대한 각종 판넬 10여종을 전시(사진)하고 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도심지 소비자 이해제고를 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임 농림부차관에 박해상씨



정부는 지난 8월 8일 12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농림부 차관에 박해상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박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3번째이며 29년 동안 농림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농업기술관료로 현장업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식량종자분야 전문가이다.

1977년 농림부에 첫발을 디딘 후 초임 시절부터 농산물검사소와 미산과(현 식량정책과)·종자공급소 등 주로 식량 증산 및 관리 등 현장과 연결된 분야에서 근무했다. 2004년 2월 차관보로 승진한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수행원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전국의 농정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를 듣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해둬으로써 '농정현장 확인 자료모음(I·II)'을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근면, 성실하고 청렴하다는 주위의 평가다. 매사 부하직원들의

경농, 다양한 친환경농업 제품 눈길

'2006서울국제원예전시회' 서 '스마트프레쉬' 소비자 관심 높아

(지)경농 (대표이사 이병만)이 '2006 서울국제원예전시회'에 참가, 농산물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요구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발맞춘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선보인 친환경 농자재는 과일·채소의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프레쉬'와 식물활력 강화제 '누네티네'를 비롯하여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천연식물추출물 '푸른손', '은하수', '왕중왕', '보검', '베스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촉진제 '제누스' 등이다. 이들 제품은 경농의 자체검증시스템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과일,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스마트프레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 농업관계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부스에 모여들어 스마트프레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과일 맛을 보고 놀라워했다.

애로사항을 챙기는 만형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부인 고진숙 여사(54)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이다.

주요 이력을 보면 △경북 청도(57) △경북대 농학과 △경북대 대학원 농학박사 △기술고시 12회 △농산과장 △국립식물검역소장 △식량생산국장 △한국농업전문학교장 △농림부차관보

영일케미컬,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지원

(주)영일케미컬(대표 김용구)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생활터전과 수많은 재산을 잃은 수재민을 돕는데 써달라며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해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

만원의 회사 성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 8월 2일에는 영일케미컬 노동조합 지회장이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모금한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우리농산물 안전성, 점점 좋아져 잔류농약기준 초과 건수, 전년비 0.3%포인트 줄어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지난 7월 19일 을 상반기에 우리농산물 141개 품목 2만3888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47개 품목 194건에 대해 112건은 출하연기,



동부한농, 고객서비스 본격 전개

전국 찾아가는 영농상담서비스, 수해때도 복구활동 지원

농 업계에도 본격적인 고객서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주)동부한농(대표이사 사장 최성래)이 최근 농업인 고객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업계에 관심이 되고 있다.

동부한농은 지난 8월 21일부터 전국 주요 농업지역을 순회하며 <영농상담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년에도 여름철에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왔지만, 올해의 <영농상담서비스>는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예년에는 약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주요 주산단지를 순회하며 서비스활동을 전개한데 반해, 올해에는 지역기술서비스센터 20명, 농생명연구소 20명, 본사 20명 등 총 60명으로 대규모 서비스단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서비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8월에만 전국 20여 지역에서 서비스활동이 진행됐으며, 9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영농상담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농업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데 있다. 예년에는 지역내 주요 장소에서 찾아오는 농업인을 맞이하여 서비스를 전개했지만, 올해에는 농업인이 많이 찾는 주요 농약시판상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작물 및 영농포장에 문제가 있어 농약시판상을 방문한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인은 작물생리전문가, 병해충 전문가, 농약전문가, 비료전문가, 농자재전문가로 구성된 영농상담서비스팀으로부터 한 장소에서 영농활동과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82건은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비율은 0.8%수준으로 전년동기 1.1%대비 0.3%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은 쪽파 16.3%, 셀러리 11.1%, 참다래 11.1%, 곤드레나물 9.5%, 파세리 5.7%, 느타리버섯 5.5% 순이었다. 또 농관원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매시장 등에서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통

보한 농산물 37개 품목 161건에 대해서는 생산지역추적 실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7~8월에는 엽채류 및 고랭지 채소, 9~11월에는 과실류 및 김장 채소류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